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1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26	유 요한	이 바오로	성인복사
5/3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5/10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5/17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4/19	\$ 465.00	\$ 175.00	\$ 470.00

*사순봉헌: \$100.0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성모의 밤: 5/24 (주일) 오후 5 시

성모의 밤 전례 중, 장미꽃 봉헌은 각자가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할 예정이며, 본당에서는 양초만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비자를 위한 기도

현재 한인공동체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에 예비자 교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이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4 월 친교모임 일정: 4/26 (주일) 오후 5 시 30 분

4 월 한인 공동체 친교를 위한 저녁모임은, 4 월 26 일 (주일) 오후 5 시 30 분입니다.

5 월 성체조배: 5/7 (목)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날’ 아침식사: 5/10 (주일) 주일미사 후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 ‘오전 8 시 미사’ 후 예년과 같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5 월 평협 임원회의: 5/12 (화) 오후 8 시 사제관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 8 시에,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월례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필사: 소구역장님께 제출

현재 매 주일미사 후 진행되고 있는 ‘사도행전 통독’이 끝나는데로, 사도행전을 필사하신 분은 구역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봄 하마미카 축제준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내면아이, ‘랄라’

김형정 소화데레사 | 배우·화가

고해성사를 하는 가운데 신부님께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미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번 미움에 휩싸이면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성체등이 켜진 감실 앞에 앉아 조용히 내면을 바라다봅니다. 잠들어 있던 온갖 상처와 분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 시절 작은 상처에 성장을 멈춰버린, 어린 자아인 ‘내면아이’가 있습니다.

1년의 영성심리상담 봉사자 교육과 4년의 개인 심리상담에서 얻은 큰 선물은 내면아이입니다. 내면아이는 오직자기 자신만이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유 없이 욱하고 폭발하는 감정은 그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억눌렀던 감정이나 서툴렀던 의사 표현을 어른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쏟아내는 것이지요.

한번은 상담을 받던 중, 어린 시절에 인형을 가지고 놀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서운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저는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장난감이 싫다고 했습니다. 심술이 나서가 아니라 어린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녀 중 맏딸로서 이런 방식으로 엄마도 돕고, 제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린 현정씨’에게 선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상담이 끝난 후 다음 상담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근처 인형가게에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귀까지 들릴 정도로 심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어린 현정씨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습니다.

첫눈에 수많은 인형 가운데에서 볼품없이 귀가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던 토끼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열린 가슴에 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룰루랄라 신나게, 재미있게 살자고 ‘랄라’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어린 현정씨는 자신만의 인형 랄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보살피듯 마음속 작은 욱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면에 있는 어린 현정씨를 편히 쉬게 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랄라를 통해 어린 현정씨에게 말을 걸고 순간순간 솔직하게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어두운 밤 깊은 잠을 청할 때도 ‘내면아이 랄라’를 가슴에 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언제나 같이 다녔고 그 모습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어린 아이들의 순박한 모습을 제게서 찾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감정은 일시적이며 강렬하고 솔직합니다. 그때그때 작은 욱구들을 채워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칭얼대는 어린 아이를 보듬고 다독이는 것은 바로 세상 안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18,3 참조)

<서울주보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전념하는

영혼의 몰입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기도도 더 잘하게 됩니다.

- 복자 샤를 드 푸코 -